DAME NELLIE MELPA New York Times

One by one the great figures of the operatic stage leave it to a younger generation that cannot deminate it as they have done. Dame Nellie Melta is singing her farewell to England and to the cperatic stage. When she is gone there will be very few "Queens of Song" left. The complaint has been made for

at least two or three centuries. The

trouble is that this time it is truly grounded. Lixty years ago or so Jenny Lind complained to Eduard Hanslick, the Viennese critic, that there were no longer any great singers, and that none were in sight; that the art of song was dying out, and that there were only shriekers and screamers. Yet at that moment there were impending Adelina Patti, Christine Nilsson, Annie Louise Cary, Clara Louise Kellogg and numerous others, not to mention a yourger throng of whem Nellie Melta is one. The curious can find the same lament running through musical memoirs and contemporary or tich ms as far back as there ever was any discernible school of vocal art. Gnly, this time it is true!

樂家「智山」

[日曜日]

도다理解하기前에는케아모리技

以美風이나라나기를빈다 (J生

巡李金孫韓李金金文金機{ 水潤出熙恭漢濟尤正源拳{ 熙洪培炎昌歸貞基柱秦昊

面

面民大會計劃

高麗自働

紙幣偽造

京驛

準竟警察에被捉

題豐松

明順)から、日本のでは 日本のでは、

저화선전에맹렬활동중 길림성내에근거를두고

崔南善氏講演

員被捉

戦亂서에但軍京東야하擊攻總軍海上

害賠償請求む

48年23八平北龍川郡)参49年で第4年で19八正統盟員)なりは でから1917年に統盟員)なりなり、日本では1917年に統盟員)なりなり、日本では1917年に対している。 중법(金納範)(원) 등산병회신천의 사명이로 약산 천부러 길립청(吉林省)성 고기를두고 표면이로는 金鍾範은逮捕む妖い

전 상 한남동산보에서는 조선 교육회 주 소로백두산리대 박물 답사단 이 사기하여 배종한북당 당시 교육회 교육회의으로 합니아소교당에서는 조선 교육회 등 이 십월일 하오딸시부터 장면함이 이 십월일 하오딸시부터 장면함이 하면 면제로 열면이 이 생활하였는데 면제로 열면이 이 하였다는데 면제로 열면이 이 하였다는데 모자로 오후가시반에 폐회 하였다는데 모자로 오후가시반에 폐회

家四口言毒殺豆对

밥에다가쥐잡는약을

너허먹인독살미수사건

七물도업누

神客은다음괴기三円主將은機

快出處是多少汉川計交口歐米 /選手を 3外立と スミ助長 計と

듯한實行이잇승은참으로不美로 터라

元善氏이라더라

지난이십구일에 엇더한자의 소 디어운것을모르고 먹고 친기비위에 의본도근한 말속군형도 식구는 생명이매우 위독하다는 손(島根縣八東鄰血道村『고목』 대 독살하려드워킹이 그집에는 살하면고 방롱에 취심는약』을 듯하다더라(송강면보)

지난철월 이십칠일밤 오찬네시 경에 춘채읍야마도 자동차부조 수리생일밤 오찬네시 자동차 조수로 있다가 이번운전 수시험에 합격할이 맛이 있는중 이대 시내청년사오인이 춘월관 이번운전 송모가리삼당에게 청구 自働車頭覆

○訂正=大正十五年七月二十日
「小家」千一百一號本報朝刊二
「京家逃走」云云의題下의記事
「記事中『壯漢四五名の人妻
「京家逃走」云云의題下의記事

男便舎刊別付 樂을볼가했더

너하고나하고는리혼하자고 자라서하는말이사랑였다고

漂流や母子

昨日本社見學

工학교의태력은

四江懿法學生

다는바 독지가의동정을 젓기위하아 오는월월십오일부러 다섯 러이라는데 일반사하의 만호농

頻頻む海州强盗 沿野**学**野玉平 양복임은피하이

의 청이는 단점 산십오류씨() 의 청이는 단점 산십오류씨() 의 청이나 단점 산십오류씨() 의 청이나 한쪽만의 최 집 명이 참인하야한후만의 최 집 당(食刀)를들고 위험하며 급품 (食刀)를들고 위험하며 급품 각간된상(乾繭區)에 가고업을 모든도곳을 알수입다한족의한 그의 무기 만이면족인다 또는소리 주지 안이면족인다고위험들하고현

정실이십구일으킨한시산성분정 급산원오십친과물품가격약십삼 등에 해주교해주면상당(海州面上 원사십친어치를강할도주하였다 만이 사십구번디 한흥준(為與後) 는데 한흥준인하시 해주정찰의 집인양복인인 피한(極漢) 로 동쇠에서는 즉시 폭우(暴 학의 젊인양복인인 피한(極漢) 로 동쇠에서는 즉시 폭우(暴 학의 젊인양복인인 피한(極漢) 로 동쇠에서는 즉시 폭우(暴 학의 점인(金炳香)과 민취하여 급품 전 보인 등등 한 시 산십분 좌좌목정찰인 모인도모든 곳을 한 수 입 한 학 전 한 시 산십분 좌좌목정찰인 무지 안이면죽인다 또는소리를 하고 현장 늘림집인후 비빌염의 를 주지 안이면죽인다 또는소리를 들하였다더라(해주) 를당하였다더라(해주) 를당하였다더라(해주)

보는 조시(相川에서도 사오일등만 보다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보는 조시(相川都西面桥 기의 어머니 항공도(相川都西面桥 기의 어머니 항공도(相川都西面桥 기의 어머니 항공도(相川都西面桥 기의 성공을 다 라고 시크 이 바다가 라고를 하는 한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다 다 표를 했다고 지고으로 도라 가 리를 의지 함을 다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리를 의지 함을 다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하는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하는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하는 이 등을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하는 이 등을 보고 자고집으로 도라 가 하는 이 등을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보고 지나 사일 등이 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하는 이 사이 생각한다 테라 이 등을 보고 하는 이 사이를 하는 이 수 이 나이를 하는 이 수 이 사이를 하는 이 수 이 이 나이를 하는 이 사이를 하는 이 수 이 나이를 하는 이 수 이 나이를 하는 이 수 이 나이를 하는 이 하는 이 이 나이를 하는 이 수

지사작하게되야 무료치료권을 지면 가무소와 주재소에 의택배를 하고 오는환자에게 친절한지!

장이도 해주군집단면이목시(實道派州郡檢升商製木市) 공연 한다 에는 병과가 무행하여 지난일은 부터 무료치료 위하여 지난일은 부터 무료치료를 위하여 지난일은 보다는 기를 위한 기를 위한

水中罗死別

長森の十名物則

夏秋兩期呈

白頭山地帯の

博物講習會開催

당디의 립시청강원을 합하여 장함을 이루어스며 예상원을 장함을 주민만들에는 환영화를 군수 박작후 (사관료) 있의 환영화를 부리개시되아 주재의 환영화를 보고 보이 한 명화가 오후네시 보고 보이 한 명화가 오후네시 보고 보이 한 명화가 오후네시 보고 보이 한 명화가 오후네시

五月會地方

巡廻童話會

런의기관